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성공을 위한 당연한 선택

2021 상공회의소 자격시험 및 우수 활용 사례 안내 Vol. 4



성공으로 가는 길, 희망으로 채워지다

Challenge the possibilities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일의 희망을 채우기 위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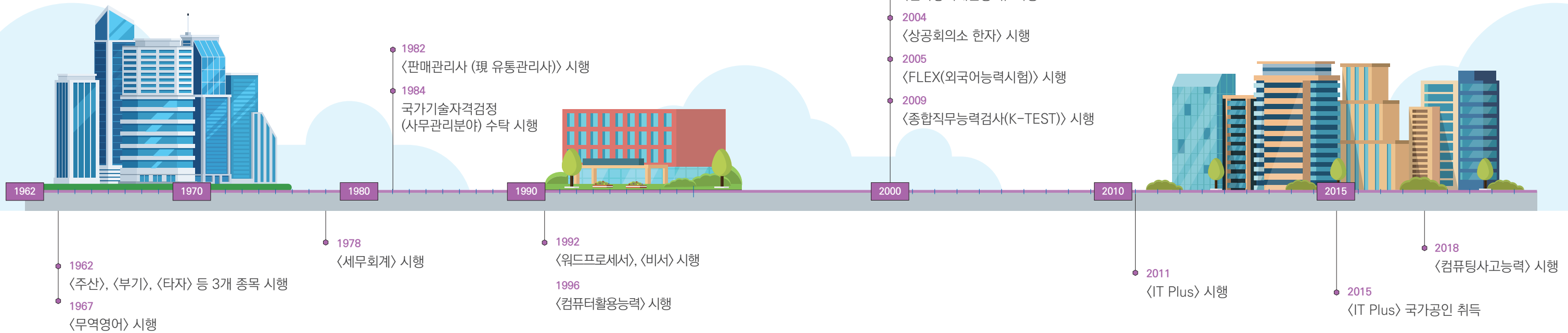
가능성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은 미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합니다.

Contents

04	대한상공회의소 소개
05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역사
06	대한상공회의소 자격 현황
07	대한상공회의소 자격 특전
08	사무정보역량 평가 / 외국어역량 평가 (사무정보)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 IT Plus (외국어)무역영어 / 외국어능력시험(FLEX) / 상공회의소 한자
15	회계·세무역량 평가 / 유통관리 및 마케팅역량 평가 (회계·세무)전산회계운용사 (유통관리 및 마케팅)유통관리사 / 전자상거래관리사 / 전자상거래운용사
20	전문기술역량 평가 / 채용 모의테스트 (전문기술)비서 / 한글속기 (채용 모의테스트) K-NCS Test / K-Aptitude Test
25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시행일정
27	우수활용 사례 안내 김선경 / 김지원 / 김가인 / 김영재 / 문성하 / 고창완 / 김민정 / 남정자 / 손유래 / 유호성 / 정석호
61	전국 상공회의소 현황 및 상시검정 안내

국내 최고의 권위와 공신력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역사는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단체입니다.

1884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는 73개 지역상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최대의 경제단체이자 국제상업회의소 (ICC)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입한 글로벌 경제단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을 위한 각종 경영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관련 각종 상담, 경제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기업 정보화, 무역인증, 교육, 홍보, 인력 개발에 이르기 까지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경제계를 대표합니다.

18만 회원사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경제, 기업, 환경, 노사, 통상 등 주요 정책 논의에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반세기이상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해 온 전통있는 자격평가 전문기관입니다.

1962년 주산, 부기, 타자 등을 시행한 이래 50년 이상의 검정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시험 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 컴퓨터시험방식(CBT) 시험, 문제은행 도입 등 국내 검정시스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검정업무 수행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근거 1984년 이후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전문적인 자격시험 운영 기관

- 1962년 첫 시행 이후 50년 이상의 검정 역사, 1,500만 명 이상 자격 취득
- 사무관리, 전문기술자격, 외국어, 직무적성검사 등 기업의 인재 선발을 위한 다양한 평가 서비스 제공

국내 자격시험 운영시스템 혁신 선도

- 국내 최초 온라인 원서접수 및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
- 국가기술자격시험 IBT(Internet Based Test) 시스템 최초 구축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네트워크

- 단일화된 전국 시행 조직망 구축
- 지방 상공회의소가 해당 지역 시험 직접 관리

최상의 수험 환경 및 검정 서비스 제공

- 상설시험장 주 3~7일 항시 운영(전국 54개 지역)
-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상공회의소 자격시험은 성공적인 취업의 첫걸음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최고의 공신력과 전문성으로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 총 4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시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가구분	종목	비고
사무정보역량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
	컴퓨터활용능력(1, 2급)	국가기술자격
	IT Plus(Level 1~5급)	공인민간자격
외국어역량	무역영어(1, 2, 3급)	공인민간자격
	외국어능력시험(FLEX) ¹⁾	공인민간자격(듣기·읽기) 등록민간자격(쓰기·말하기)
	상공회의소 한자(1~9급)	공인민간자격(1~3급) 등록민간자격(4~9급)
회계·세무역량	전산회계운용사(1, 2, 3급)	국가기술자격
유통관리 및 마케팅역량	유통관리사(1, 2, 3급)	국가자격
	전자상거래운용사	국가기술자격
	전자상거래관리사(1, 2급)	국가기술자격
전문기술역량	비서(1, 2, 3급)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1, 2, 3급)	국가기술자격
	컴퓨팅사고능력(1, 2, 3급)	등록민간자격
취업 모의테스트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

1)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상공회의소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상공회의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기업·대학·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공회의소 자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 가점 적용

자격종목	가산비율(%)	비고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2.0%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	직무분야 : 회계·세무·관세 채용직급 :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에서 인정

주요 공공기관 채용전형 가산점

- 관련법령 : 각 공공기관 인사내규 등
- 해당종목 : 모집단위의 해당종목
-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2개 공공기관

학점 인정

자격종목	급수	인정학점	자격종목	급수	인정학점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5	컴퓨터활용능력	1급	14
	2급	18		2급	6
유통관리사	1급	20	비서	1급	10
	2급	10		2급	4
전산회계운용사	1급	18	상공회의소 한자	1급	5
	2급	14		2급	3
전자상거래운용사	단일등급	16	FLEX	1A	10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4		1B	8
무역영어	1급	3		1C	5
				2A	3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특별 전형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및 제40조(전문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해당종목 : 모집단위의 해당종목(국가기술자격 전 종목 해당)

대학별 특전제공

- 특별전형 자격부여, 학점인정, 장학금, 졸업자격요건, 실기교사취득 등
- *대학별 상세 특전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및 각 대학 관련 부서에서 확인

사무정보역량 평가

문서작성과 정보처리 능력 등 사무정보 자격시험의 최고 권위,
사무정보역량 평가

- 09 워드프로세서
- 10 컴퓨터활용능력
- 11 IT Plus



외국어역량 평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상공회의소 외국어 자격시험

- 12 무역영어
- 13 외국어능력시험(FLEX)
- 14 상공회의소 한자



상시시험 종목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605만명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된 명실공히 국민자격시험으로 컴퓨터의 기초사용법과 효율적인 문서작성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단일등급	필기	워드프로세싱 일반 PC운영체제 컴퓨터와 정보활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문서편집기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 실기프로그램 : 한글 2020, MS워드 2016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2021년 시행일정

상시시험 (전국 57개 상공회의소 상시검정 진행 중)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실기	단일등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연중상시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시험일 포함 주 제외한 2주 뒤 금요일

상시시험 종목

컴퓨터활용능력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295만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권위있는 IT자격시험으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 사무정보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스프레드시트 실무, 데이터베이스 실무	컴퓨터 작업형	90분 (과목별 45분)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객관식 40문항	40분
	실기	스프레드시트 실무	컴퓨터 작업형	40분

※ 실기프로그램 : MS오피스 2016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1급은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

2021년
시행일정

상시시험 (전국 57개 상공회의소 상시검정 진행 중)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실기	1·2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연중상시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시험일 포함 주 제외한 2주 뒤 금요일

IT Plus + 공인민간자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활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상공회의소가 개발한 시험으로 문서 작성, 계산·분석, 프레젠테이션 도구제작 등 업무와 학습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과목명	검정방법	문항수	시험시간	비고
IT+워드프로세서	실기	컴퓨터 작업형 2~4문항	40분	한글 2020
IT+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작업형 4~5문항	40분	MS Office Excel 2016
IT+프레젠테이션			40분	MS Office Power Point 2016
IT+데이터베이스			40분	MS Office Access 2016
IT+정보활용지식	필기	객관식 25문항	30분	객관식 4지 선다형

합격기준

Level 3까지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 발급 가능

시험과목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IT+워드프로세서	1과목 60점 이상	2과목 60점 이상	3과목 60점 이상	3과목 70점 이상	4과목 80점 이상
IT+스프레드시트					
IT+프레젠테이션					
IT+데이터베이스					
IT+정보활용지식	-	-	-	60점 이상	60점 이상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자격 취득 대상자에게 IT Plus 실기시험 일부 면제 혜택 제공

2021년
시행일정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행일	발표일
1회	필/실기	Level 1~5	05.27~06.02	06.19	07.20

※ 상공회의소 한자(4,5,6,7,8,9급), FLEX(쓰기, 말하기) 등록민간자격임

※ 상공회의소 한자, IT Plus 수시검정은 2020과 동일하게 시행

무역영어 + 공인민간자격

무역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영문서류 작성 등 무역실무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1967년 첫 시행 이후 50년 동안 꾸준히 시행된 전통 있는 무역분야 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2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3급	필기	영문해석·영작문·무역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2021년 시행일정	상시시험(전국57개 상공회의소 상시검정 진행 중)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행일	발표일
	필기	1·2·3급	4~6월, 9~11월	접수기간 중 일요일, 화요일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외국어능력시험(FLEX) + 공인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글로벌 인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외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문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행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총 7개 언어입니다.

자격종목 및 시험과목		검정방법		총점	시험시간
듣기/읽기	듣기	청취형	객관식 50문항	400점	120분
	읽기	독해형	객관식 90문항	600점	
쓰기		필답형	주관식 10문항	250점	60분
말하기		녹취형	주관식 9문항	250점	25분

* FLEX, 공무원 5급·7급 공채 영어 인증시험으로 채택(2017년부터 적용)

합격기준	등급	듣기/읽기 점수	쓰기 점수	말하기 점수	비고
	1A	951~1,000점	239~250점	239~250점	취득 점수별 등급부여
	1B	901~950점	227~238점	227~238점	
	1C	851~900점	215~226점	215~226점	
	2A	776~850점	200~214점	200~214점	
	2B	701~775점	185~199점	185~199점	
	2C	626~700점	170~184점	170~184점	

※ 3A~3C 등급은 홈페이지 참조

2021년 시행일정	종목	회별	검정방법	등급	접수기간	시행일	발표일
	영어	1회	듣기·읽기	점수제	02.25~03.03	03.28	04.16
			쓰기/말하기				04.30
	중국어 일본어	2회	듣기·읽기	점수제	04.29~05.05	05.30	06.18
			쓰기/말하기				07.02
	프랑스어 독일어	3회	듣기·읽기	점수제	08.05~08.11	09.05	09.24
			쓰기/말하기				10.08
	러시아어 스페인어	4회	듣기·읽기	점수제	10.21~10.27	11.21	12.10
			쓰기/말하기				12.24

상시시험 종목

상공회의소 한자 + 공인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중국 등 한자문화권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한자〉는 한자의 이해 및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시험과목 및 문항수				합격점수/전체총점	시험시간
	한자	어휘	독해	합계		
1급	50	50	50	150	810/900	80분
2급	50	40	40	130	608/760	
3급	40	40	40	120	576/720	60분
4급	40	35	35	110	455/650	
5급	40	30	30	100	406/580	
6급	45	30	15	90	288/480	40분
7급	40	20	10	70	216/360	
8급	30	15	5	50	150/250	30분
9급	20	10	0	30	84/140	

※ 1~3급/공인민간자격 교육부 제2018~10호, 4~9급/등록민간자격

합격기준

- 1급 : 만점의 90% 이상 득점(전과목 60% 이상 득점)
- 2~3급 : 만점의 80% 이상 득점(전과목 60% 이상 득점)
- 4~5급 : 만점의 70% 이상 득점
- 6~9급 : 만점의 60% 이상 득점

2021년
시행일정

상시시험 (전국 57개 상공회의소 상시검정 진행 중)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	1~9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연중상시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시험일 포함 주 제외한 2주 뒤 금요일

회계·세무역량 평가

기업 현장 실무에 강한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가 되는 길,
회계·세무역량 평가

16 전산회계운용사



유통관리 및 마케팅역량 평가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유통경영 전문가의 조건,
유통관리 및 마케팅역량 평가

17 유통관리사

18 전자상거래관리사

19 전자상거래운용사



상시시험 종목

전산회계운용사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방대한 회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산회계운용 전문가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운용사>는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정보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객관식 60문항	80분
	실기	회계시스템의 운용	컴퓨터 작업형	100분
2급	필기	재무회계, 원가회계	객관식 40문항	60분
	실기	회계시스템의 운용	컴퓨터 작업형	80분
3급	필기	회계원리	객관식 25문항	40분
	실기	회계시스템의 운용	컴퓨터 작업형	60분

* 실기프로그램 : CAMP sERP(웹케시 sERP2.0 기반), NEW sPLUS(더존의 smart A 기반) 중 택1]

* 계산기 지참 가능(단, 공학용 및 검색가능한 계산기는 불가)

* 3급 필기 면제검정은 정기/상시 모두 가능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2021년
시행일정

상시시험(전국57개 상공회의소 상시검점 진행 중)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실기	1, 2, 3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연중 상시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시험일 포함 주 제외한 2주 뒤 금요일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실기 시험 : 6월 26일(토), 10월 16(토)

유통관리사

+ 국가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유통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사>는 소비자·생산자간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현장에서 활약할 유통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질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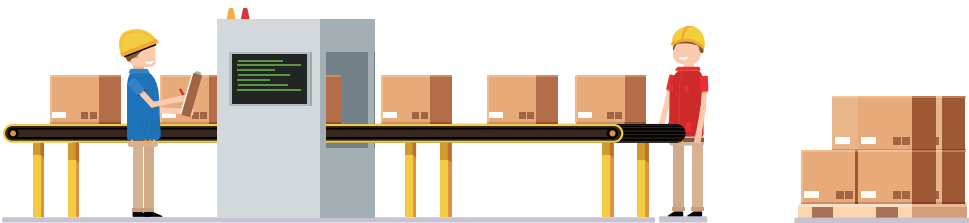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100분
2급	필기	유통물류 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100분
3급	필기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45분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021년
시행일정

구분	검정방법	등급	접수기간	시행일	발표일
1회	필기	2·3급	04.22~04.28	05.15	06.15
2회	필기	1·2·3급	07.29~08.04	08.21	09.21
3회	필기	2·3급	10.14~10.20	11.06	12.07



전자상거래관리사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21세기에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 기술, 마케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객관식 100문항	100분
	실기	전자상거래 실무	필답형	100분
2급	필기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객관식 80문항	80분
	실기	전자상거래 구축 기술	컴퓨터 작업형	80분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실기 : (주)코리아센터 high 메이크샵, NHN고도(주) 고도몰5 이상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021년 시행일정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1회	필기	1·2급	05.27~06.02	06.19
	실기	1·2급	08.26~09.01	09.18
2회	실기	1·2급	11.04~11.10	11.27

전자상거래운용사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단일등급	필기	인터넷 일반 전자상거래 일반 컴퓨터 및 통신 일반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전자상거래 구축 기본 기술	컴퓨터 작업형 4문항	60분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2021년 시행일정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1회	필기	단일	05.27~06.02	06.19
	실기	단일	08.26~09.01	09.18
2회	실기	단일	11.04~11.10	11.27



전문기술역량 평가

기업 산업현장에서 인정받는 인재,
전문기술역량 평가 자격으로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갑니다.

- 21 비서
- 22 한글속기



채용 모의테스트

취업 자신감으로 당당해진 미소,
당신의 밝은 미래를 상공회의소가 응원합니다.

- 23 K-NCS Test(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24 K-Aptitude Test(직무적성검사)



비서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경영진이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 많은 시간을 중대한 의사결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비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서〉는 경영진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	비서실무,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 경영일반	객관식 80문항	80분
	실기(택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1·2급, 전산회계운용사1·2급	선택종목 기준에 따름	
2급	필기	비서실무,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 경영일반	객관식 80문항	80분
	실기(택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1·2급, 전산회계운용사1·2급	선택종목 기준에 따름	
3급	필기	비서실무,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택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선택종목 기준에 따름	

합격결정 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선택종목(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 전산회계운용사)의 합격 결정기준에 따름

2021년 시행일정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	1·2·3급	4~6월, 9~11월	접수기간 중 일요일, 화요일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해당 종목 발표일

한글속기 + 국가기술자격

각종 회의, 세미나, 강연 등의 개최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언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전문 속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속기>는 발언내용의 신속·정확한 기록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낭독분량	낭독시간
1급	실기	연설체	1,650자 분량의 연설문	과목별 5분
		논설체	1,500자 분량의 논설문	
2급	실기	연설체	1,50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350자 분량의 논설문	
3급	실기	연설체	1,35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200자 분량의 논설문	

* 실기장비 : CAS, 소리자바,KS표준속기검용키보드(문화콘텐츠개발원),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

합격기준

1급 매 과목 정확도 92% 이상, 2·3급 매 과목 정확도 90% 이상

2021년 시행일정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행일	발표일
1회	실기	1·2·3급	03.11~03.17	4.03	5.04
2회	실기	1·2·3급	08.19~08.25	9.11	10.12



K-NCS Test(NCS 직업기초능력평가)

K-NCS Test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재학생이 공공기관 채용시 실시하는 NCS직업기초능력을 사전에 진단하여 현재 능력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의테스트입니다.

검사개요

평가영역	하위능력	문항수	소요시간	문항유형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언어구사 기초연산, 기초통계, 도표분석 사고력, 문제처리 시간관리, 예산관리, 인적/물적자원관리 컴퓨터활용, 정보처리 기술이해, 기술선택, 기술적용 조직체제이해, 경영이해, 업무이해	각 15문	각 15분	객관식 4지 선다형
7개 영역	-	105문	105분	

시행방법

온라인검사(개인 PC/노트북 사용, 모바일 시행 없음)

결과제공

개인분석리포트

검사비용

33,000원(부가세 포함)

시험주관

대한상공회의소와 ORP연구소 공동 주관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재평가사업팀 K-TEST 검사 업무지원실(02-6050-3762, 3764)



K-Aptitude Test(직무적성검사)

K-Aptitude Test는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재학생이 기업 채용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자신의 현재 능력수준과 적합한 기업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모의테스트입니다.

검사개요

평가영역	하위능력	문항수	소요시간	문항유형
언어이해 언어추리 자료이해 수리도형추리 응용계산 공간지각	문서이해, 쓰기, 경청, 말하기 논증, 추리 도표해석, 도표작성, 자료추리 수 추리, 도형추리 계산력, 기초통계능력 공간지각, 공간추리	각 15문	각 15분	객관식 4지 선다형
6개 영역	-	90문	90분	

시행방법

온라인검사(개인 PC/노트북 사용, 모바일 시행 없음)

결과제공

개인분석리포트

검사비용

33,000원(부가세 포함)

시험주관

대한상공회의소와 ORP연구소 공동 주관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재평가사업팀 K-TEST 검사 업무지원실(02-6050-3762, 3764)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시행일정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등급)	회별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자	발표일자
컴퓨터활용능력	-	필기 실기	1·2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전까지	연중상시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시험일 포함 주 제외한 2주 뒤 금요일
워드프로세서	-	필기 실기	단일			
전산회계운용사	-	필기	1·2·3급		06.26	
		실기	1급		10.16	
			2·3급		연중상시	
비서		필기	1·2·3급		4~6월, 9~11월 중 일요일, 화요일	
한글속기	1회	실기	1·2·3급	03.11~03.17	04.03	05.04
	2회	실기	1·2·3급	08.19~08.25	09.11	10.12

국가자격시험

종목(등급)	회별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자	발표일자
유통관리사	1회	필기	2·3급	04.22~04.28	05.15	06.15
	2회	필기	1·2·3급	07.29~08.04	08.21	09.21
	3회	필기	2·3급	10.14~10.20	11.06	12.07

공인(등록) 민간자격

종목(등급)	회별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자	발표일자
FLEX (외국어능력평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1회	듣기·읽기	점수제	02.25~03.03	03.28	04.15
		쓰기/말하기				04.30
	2회	듣기·읽기	점수제	04.29~05.05	05.30	06.18
		쓰기/말하기				07.02
	3회	듣기·읽기	점수제	08.05~08.11	09.05	09.24
		쓰기/말하기				10.08
	4회	듣기·읽기	점수제	10.21~10.27	11.21	12.10
		쓰기/말하기				12.24
IT Plus	1회	필/실기	Level 1~5	05.27~06.02	06.19	07.20

※ 상공회의소 한자(4,5,6,7,8,9급), FLEX(쓰기, 말하기) 등록민간자격임

※ 상공회의소 한자, IT Plus 수시검정은 2020과 동일하게 시행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 취업·진학 활용사례

수기공모 수상작



최우수상

탈락과 합격 사이, 컴퓨터활용능력이 있었다.

김선경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우수상

‘나’를 찾아가는 길, 한글속기와 동행하다.

김지원 / 한글속기 1급, 2급, 3급

상의 자격증 취득으로 대회 우승, 진학, 취업까지!

김가인 / 전산회계운용사 2급

외자 구매 관리자의 지름길이 되어준 자격증

김영재 / 무역영어 1급, 유통관리사 2급

나를 다시 증명해내는 시간

문성하 / 비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장려상

모든 것이 멈췄다. 하지만 다시 시작이다.

고창완 / 유통관리사 2급

내 시작의 이야기 - 후배들에게

김민정 / 컴퓨터활용능력 2급

나는 할 수 있다.

남정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상공회의소 한자시험 덕에 얻은 한의학 공부의 기회

손유래 / 상공회의소한자 2급

무역영어로 시작하여 무역전문가가 되다.

유호성 / 무역영어 1급, 2급, 3급

비서 자격증으로, 올림픽에서 취업까지

정석호 /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탈락과 합격 사이, 컴퓨터활용능력이 있었다.

김선경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019년도 신입사원 채용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 - ○○공사 -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나 탈락하게 되면, 실의에 빠진 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될까봐 화장실에 숨어서 전형 결과를 확인하던 참이었다. 이전에 내게 한 차례 탈락을 안겨준 적이 있었던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제는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받다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벅차지는 가슴에 나는 그저 어린 아이처럼 부모님을 찾았다.

한 번의 탈락과 한 번의 합격. 그 사이에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괜히 우대를 해주는 자격증이 아니구나

2017년, 대학을 갓 졸업했던 나는 사기업 사무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지인들의 축하를 만끽하던 것도 잠시, 어느 순간 신입사원의 수준을 벗어난 업무 지시와 타부서 업무 떠넘기기, 그로 인한 필연적인 야근에 허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원체 동글동글한 성격이라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2018년, 나의 성향과 경력을 활용하기에 최적인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발견했다. 공공기관 입사의 key는 필기전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전형에서 최대한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스펙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 무지하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런 우대 자격증도 없이 해당 기관의 필기시험에 응시했다가 무참히 탈락했다.

실패를 교훈삼아 공공기관 채용전형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수십여 곳의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분석하자 놀랍게도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급 보유 시 공기업 취준생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발전공사와 공항공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내가 지망하는 기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부랴부랴 1급 취득에 나섰다.

사실 필기시험은 이전에 통과를 해둔 상태였다.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 요약집을 구해서 공부한 결과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사기업 취업 이후 손을 놓고 있던 실기였다. 처음 실기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불합격 횟수만 최소 3회 이상이었고, 그제야 '공공기관에서 괜히 우대를 해주는 자격증이 아니구나.'하고 깨달았다.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서적을 구매하고 2주 안에 합격하자는 각오로 공부 계획을 세웠다. 첫째 주에는 엑셀과 액세스의 각 기능을 공부하고, 둘째 주에는 모의테스트를 풀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엑셀 함수와 프로시저, 액세스 쿼리와 이벤트 프로시저 사용법을 확실히 익혔고,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꼬리문제 하나만 틀려도 20점이 날아가는 엑셀의 분석 파트도 철저히 공부했다. 특히 채점 후 복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분명 바르게 푼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감점된 부분을 알 수 있기에 잘못된 습관만 바로잡았는데도 금세 15~20점 정도가 올랐기 때문이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합격선까지 올라왔다고 느꼈을 때, 하나만 붙자는 마음으로 연속 3일 실기시험을 접수했다. 그 결과 1일차는 엑셀 62점, 2일차는 엑셀 67점과 액세스 66점, 3일차는 엑셀과 액세스 모두 70점을 넘겨 실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라는 지원군을 얻었기에 마음이 한결 든든했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1지망 기관의 공개채용이 시작되었다. 전년도에는 혈혈단신으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라는 지원군을 얻었기에 마음이 한결 든든했다.

나는 입사지원서에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기재하였고, 필기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은 덕분에 0.5문제 차이로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었다. 이후 최종합격까지의 여정은 순탄했다. 사실 1급 취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만 한다면 앞으로도 못 하는 일이 없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큰 성과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믿음으로 면접에 임하자, 감사하게도 면접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최종합격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컴퓨터활용능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글을 쓰면서 괜히 오싹해지는 기분이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고용 시장으로 인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 보인다.

컴퓨터활용능력은 서류와 필기전형에서 가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NCS정보능력 문제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해두는 것이 분명 유리하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저와 같이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를 찾아가는 길, 한글속기와 동행하다.

김지원 / 한글속기 1급, 2급, 3급



차가운 현실의 바다에서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21세, 대학도 졸업하기 전 어린 나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은 드라마처럼 멋지고 여유 넘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알았죠, 이곳은 현실이구나. 현실은 깊은 심해와 같았습니다. 바다의 표면처럼 잔잔하고 일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서바이벌 같았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엉망진창 된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한차례 휩쓸고 간 것 같았죠.

망가진 심신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쉬는 게 어때요?” 그렇게 퇴사라는 처방전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릴 적 꿈꾸던 꿈을 이루기엔 늦었을지언정 이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겁도 났습니다. 그동안 견고하게 쌓았던 성을 내 손으로 부수어야 했고 막상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쌓지 못할까 봐.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했고 속기사란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한글속기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며 고비도 있었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시점이 시험 일자와 맞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음 시험을 기약하며 연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10시간 넘게 키보드를 치다 보니 인대 손상과 근육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이 내 자신을 지치게 할 때마다 속기사로서 멋있게 근무하고 있을 미래를 상상하면서 버텼고, 마침내 한글속기 1~3급 모두 취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격증 발표 날,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가슴 졸임과 부담감, 걱정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안도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기사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서 교육속기사로 빛나다

속기사가 되어 처음으로 근무한 곳은 자막방송 사업부였습니다. 평소에 그저 눈과 귀로 재미있게만 프로그램을 즐겼다면, 속기사가 된 후에는 청각장애인의 귀를 대신하여 손으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으로도 웃고 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막송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되었고 교육속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속기는 청각장애를 지닌 학생을 위하여 강의를 속기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적는 것을 넘어서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학생과 차별 없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과의 교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일상이 달라졌고 교육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대면이 금지되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있어 장애 학생들은 수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속기사입니다. 이렇듯 언택트 시대에서 속기사는 다방면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와 같은 교육속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숙한 속기사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조금해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가보려 합니다. 먼 훗날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속의 나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상의 자격증 취득으로 대회 우승, 진학, 취업까지!

김가인 /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전국 NCS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가산점 부여

대학교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하여 전공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전공동아리는 전공과목 지식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회계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수상 받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동아리에서 동기들을 이끄는 멘토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용사를 취득하고자 했던 계기는 전국 NCS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에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회에서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새벽까지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동시에 경시대회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대학부 단체 최우수상’과 ‘개인 우수상’을 수상하여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본교 학과의 우수 멘토로서 장학금까지 수여하는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전산회계운용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에도 도움

전문대학교 2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4년제 대학 학위 취득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던 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위 취득에 있어서도 제가 보유하고 있던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자격증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자격증으로도 학점을 인정 받아 정규 4년제 학위보다 빠르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전산회계운용사 2급은 해당 학과에서 14학점이라는 큰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서로 다른 자격증 3개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타 기관 자격증까지 총 28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7개월 만에 학점은행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전산회계운용사, 취업이라는 큰 성과까지

전공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교 학점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던 제가 본보기가 되어 좋은 영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운이 좋게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취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제가 취득했던 전산회계운용사 2급을 기록하여 취업에도 도움이 되었고, 업무를 하면서도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대표님과 회계사님들의 신임을 얻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어디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

그동안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활용사례 공모전 수기를 작성하면서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대회 우승과 취업, 진학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어느 곳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전산회계운용사 2급뿐만 아니라 1급까지 취득을 하려고 현재 공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등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스스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자 구매 관리자의 지름길이 되어준 자격증

김영재 / 무역영어1급, 유통관리사2급



멀고도 험난한 취업의 길

‘해마다 늘어나는 취준생들’, ‘취업 시장 빨간 불’ 등의 문구는 우리가 낯설지 않게 언론이나 뉴스 보도로 매우 자주 접하는 문구이다. 대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나는 그때부터 슬슬 객관적인 현실을 인지하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학교 선배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선배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뭐라도 준비를 해야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어떤 것을 준비할까 하다가 생각 난 것이 무역영어와 유통관리사 자격증이였다.

나는 국제통상학과였기 때문에 위에 무역영어와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든 향후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때부터 두 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자격증 두 개를 취득하다

당시에 우리 집안은 아버지의 도박 빚과 그로 인한 가출로 인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매 학기마다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시간 나는 틈틈이 공부를 해야만 했다. 또한 밥을 굶지 않으려면 학교를 가기 전과 마친 후에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격증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더 빨리 준비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을 자책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집중하며 공부하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유통관리사 2급은 첫 시험에 바로 붙을 수 있었고, 무역영어 1급은 2번째 도전 끝에 합격의 단 맛을 볼 수 있었다.

외자 구매 관리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무역영어 및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하여 희망 직무를 구매로 정한 나는 여러 회사들에 지원을 하였고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다른 기업들에게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구매 직무와의 연관성에서 위 두 개의 자격증이 있어 타 지원자들과 다른 차별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직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현재 나는 현대제이콤 구매팀에서 외자구매 관리자로 직무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주 및 납기 관리, 통관 업무, 관세 납부, T/T 송금 및 신용장 개설, 원산지 증명서의 해석, 해외 바이어 직접 컨택 등 신입으로서는 모두 관리하기 힘든 업무들을 현재 모두 처리, 관리하고 있으며 외자 담당 이외에도 전반적인 자재의 유통 및 입고 등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무역 실무의 전반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각종 무역 서류, 무역 용어들과 구매 및 유통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무역영어와 유통관리사 자격증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

현대제이콤 회사는 군 물품을 납품하는 방산기업이다. 방산기업은 특성상 매우 엄격하고 규격화 된 자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외자구매 업무를 직접 맡는 것에 대해 잘 할 수 있을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외자 구매업무에 대해 능통하게 일을 처리하며 업무를 인정받고 있다.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을 수도 맡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도 기뻐지만 이제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내 인생의 2막을 열게 해 준 상공회의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나를 다시 증명해내는 시간

문성하 / 비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취업만 목표로 했던 두 번의 시행착오

대학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가고시나 창업은 돈을 버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선택지에 두지 않았다. 오로지 회사 취업만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내 손에 가장 먼저 '합격 목걸이'를 쥐어준 곳에 입사했다.

하지만 첫 직장을 선택할 당시의 나는 적성이나 흥미 등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회사의 비전 같은 것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그럴싸하게 나를 꾸며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여는 데에만 급급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안일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입사한 첫 회사생활은 당연히 녹록치 않았다. 사무직 사회초년생 치고는 꽤 높은 연봉을 받던 나는 3년 뒤 여러 스트레스성 질환과 함께 퇴사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두 번째 회사는 보름 만에 퇴사했다. 정년을 보장하는 공기업이었지만 첫 번째 회사를 선택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나는 입사 후 회사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퇴사의 결심을 첫 번째 보다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나는 실의에 빠졌다. 여태껏 애써서 쌓은 '스펙'들도 허무하게 느껴졌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작정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직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새로이 도전한 분야에서 나의 역량과 적성을 증명해 준 비서 1급

그러던 중 나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로펌 비서'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규칙적이고 체계화된 업무환경 하에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누군가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내게 잘 맞는 일 같다고 했다. 구미가 당겼지만 문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야의 일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비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시험 응시를 결정했다. 비서 자격증의 실기시험 과목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컴퓨터활용능력 1급의 난이도는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당시 아는 바가 없던 나는 수년간 회사생활을 하며 '컴퓨터'를 '활용'해왔으므로 별다른 준비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기시험에 수차례 낙방한 후에야 비로소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해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급 내가 로펌 비서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한 첫 자격시험 이다보니 더욱 애착을 가지고 준비했다.

과거 무작정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할 때와는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랐다. 우스갯소리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격증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또한 비서 자격증 필기시험 과목 중에는 '비서실무' 과목이 있는데, 비서 경험이 전무했던 나는 이 과목을 통해 비서 업무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비서로서 어느 업무부터 처리해나가야 할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웠던 것인데, 실무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돌아온 내가 위와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나의 역량과 적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의미 없는 스펙만 쌓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 것도 바로 이때 취득한 자격증 덕분이다.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면접을 볼 당시 나의 실무능력이나 직무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의문을 갖는 면접관은 없었다.

나는 현재 직장에서 비서로 4년째 일하고 있고, 근무환경과 업무에 만족하며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는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자격증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기를 소망한다.

모든 것이 멈췄다. 하지만 다시 시작이다

고창완 / 유통관리사 2급



갑자기 찾아온 퇴직, 재취업의 길은 쉽지 않았다

오십대 중반에 갑자기 찾아온 퇴직. 처음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면서 여행도 가고 취미활동도 하면서 집에서 쉬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집에서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 점점 지루해져 갔다. 집 주변 바닷가와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마주치는 모두가 나를 실업자라고 수근거리는 것 같아 재취업의 길에 도전하게 되었다.

나는 위험물기능장, 전기기능사, 심지어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총 이십 여개의 자격증과 퇴직 전에 직원, 장비, 시설 물품 등 총괄관리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여러 취업사이트를 하루에도 수차례 들락거리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오십 여 곳의 기업에 이력서를 보냈다. 간간히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센터에서 소개하는 몇몇 곳에서 면접을 봤으나 신입사원으로는 과한 나이로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유자격과 과거 전문경력에 대한 자부심은 서서히 사라져 갔다.

사십 여년 공학도가 유통관리사 자격에 도전하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담 중에 지금 나이에 그래도 취업하기 쉬운 직종은 시설관리나 창고관리, 물품관리 등이며 지게차 자격증과 더불어 유통관리사가 활용도가 높으니 도전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십 여년을 공학도로 살았고 상업계통 용어나 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유통관리사 자격에 도전하게 되었다. 기존 출제되었던 문제지와 예상 문제 책자 두 권을 구입하였다. 책을 펴는 순간 생소한 책 내용에 눈앞이 캄캄하고 '책을 괜히 샀구나'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어느 영화 제목처럼 그래도 다시 한 번 읽어나 볼까하는 생각에서 책을 찬찬히 읽어보니

아하! 백화점에 가면 매대 상품 진열된 것과 각 점포마다 특색 있게 진열된 모습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무역 전쟁 관련 용어들이 그 책 속에 모두 들어 있었다. 그래 이런 내용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이군' 이란 생각에 흐뭇했다.

공부란 부끄러운 게 아닌 또 다른 도전이란 것을 새삼 느끼며

'그래 다시 시작이다. 시험이란 게 별 것인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배움이란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서유럽 여행 10일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관광지를 이동할 때마다 책을 보니 같이 여행을 간 부부 들과 가족들이 참 별나게 공부한다는 핀잔이 이어졌다. 병원 진료순서를 기다리면서도 책을 보고 있으니 모르는 아주머니가 다가와 어떤 공부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아무래도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돋보기 끼고 문제 푸는 모습이 신기했던가 보다. "유통관리사 공부하고 있어요."라는 대답에 "어머 그래요? 저는 물류관리사 공부하고 있어요." 하며 반색하여 즐거워했다. 주변 지역 도서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그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도 십여 명이 눈에 띄어 살짝 지나가면서 공부하는걸 보면 공인중개사, 전기산업기사, 공조, 냉동 등이 대부분이었다. 다들 저렇게 어려운 것을 공부하는데 나는 안 될 것이 없다며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책을 들여다봤다.

드디어 유통관리사 취득, 다시 제2의 인생 시작이다

새벽 한시쯤 아내가 같이 있어준다고 옆에서 켄트 바느질에 열중인 모습도 내겐 힘이 되었다. 드디어 첫 시험, 교실에 앉은 나이 어린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풀었지만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 그러나 한 점차 불합격은 또 다른 희망이었다.

두 번째 자격 취득 도전에 간신히 합격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작지만 알찬 접착제 제조회사 자재 팀장으로 취업했다.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대상인 유통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채용된 것이다.

배정받은 업무는 중국 및 타이완, 독일, 태국과의 수입 통관업무와 회사의 원자재 관리 및 도급업체 원자재 및 제품생산 공정 확인과 완성품 수령하기, 자체 생산제품을 택배, 화물 발송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업무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무역은 무역영어가 필수이지만 부족한 영어는 토익 600점대 정도와 인터넷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기타 여러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극복해나갔다.

특히 어려운 도급업체 관리는 원자재 수급부터 중간 생산단계, 제품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 감독이 필요했다. 단가 관리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자재가 도급업체로 입고 될 때는 입고 수량과 완제품 대비 투입 원자재 잔량 관리를 엄격히 했다. 원자재 발주시 여러 업체와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원자재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이제 다시 제2의 인생 시작이다. 멋지게 파이팅을 외치며!

내 시작의 이야기 - 후배들에게

김민정 /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 장의 자격증이 사람을 구했다

자격증, 자격증…. 취업준비생이라면 질릴 만큼 듣는 단어일 것이다. 한 장의 자격증이 사람을 구했다고 말하면 거창하다고 웃을까.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다. 검찰 공무원이 될 거라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저 할 거라고 스물여섯이 되도록 자격증 하나 없이 도서관과 집만 오가던 날들이 갑자기 끝나버렸다. 국내에서 등록금이 비싸기로 1, 2위를 다투는 대학에 있는 동생 학비가 문제였다.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 취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변변한 사회경험도 없이 자격증 한 줄 채우지 못하고 쓴 이력서를 누가 좋게 봐주겠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많은 이력서를 넣었고 하루에 수십 군데를 넣어도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해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다.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지원금이 있다는 말에 부끄럽게도 당장 돈이 급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다. 지원요건 중에 가장 빠르게 배워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엑셀이었다. 시험을 두 번 칠 여유도 없어서 어떻게든 한 번에 합격해야 했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 한 줄의 자격증 기록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이 항목이 추가된 이력서를 넣고 나서 바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허탈하리만큼 빠른 연락이었다. 며칠 동안 네다섯 곳의 연락을 받고 좀 더 나은 곳을 골라서 취업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이름 있는 외국계 기업의 최종 면접까지 들어가 쟁쟁한 사람들과 겨룬 적도 있었다. 능력을 공인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은 몰랐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한편으로는 안도했던 시간이었다.

이후 첫 직장에서 자리를 옮겨 연봉도 더 높고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누가 그러지 않았나?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퇴사라고’ 진담 섞인 우스갯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자격증 한두 개, 믿는 구석이 있으니 더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었다. 자격증은 취업 이후에도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이다.

후배들에게 꼭 하는 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따라

가끔 대학교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온다. 특히 법대는 국가시험만 합격하면 되니 자격증은 아예 손을 안 댄다. 몇 년을 법 공부만 하다가 결실 없이 공부를 접었을 때 그 막막함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 법대 차석 졸업까지 해놓고 취업으로 방향을 바꾼 선배는 드물기에 뭐부터 하면 좋겠냐며 잔뜩 흐린 얼굴로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다.

이런저런 조언이 있지만 빠지지 않고 꼭 해주는 말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따라. 열심히 준비하면 빠르게 취득할 공사나 공단을 가더라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없으면 굳이 1급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2급으로 이만큼 경력 키웠다”고 얘기한다. 직장에서도 엑셀은 수준급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는 말도 붙인다. 어두운 얼굴이 조금 웃으며 “선배 그거 소위 말하는 근자감은 아니지요?”라고 말하기에 “야, 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라는 농담으로 화답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래도 컴퓨터활용능력은 뒀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뜻을 박는다.

몇 년째 하던 공부를 놓고 강제로 사회로 나가야했던 때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따지 않았으면 아마 시작도 못해보고 흐름에 휩쓸려서 꺾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격증은 내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준 목발이었다.

한 장의 자격증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은 지금보다 취업난이 덜한 8년 전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힘겹게 발을 옮기는 후배들에게 내 이야기가 조금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간혹 수십, 수백 장의 온갖 자격증을 뒀다는 사람들이 나온다. 어디 들어가려면 이런 자격증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정보도 넘친다. 내게는 없는 능력이라고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어도 되니 일단 해보자고 말하고 싶다.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거라고, 나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이제 출발선에 선 어린 친구들의 등을 다독여주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다

남정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63세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따다

내 나이 현재 76세로 1945년생이다. 내가 처음 60세가 넘어 컴퓨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국제 전화료 때문이다. 외국에 있는 딸들과 잠깐씩 통화를 해도 한 달 국제 전화료가 350,000원이나 나왔다. 이것을 알고 딸아이가 컴퓨터 메신저로 하면 전화료도 안 들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컴퓨터 배우기를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편히 살려고 하는 판에 무슨 컴퓨터를 배우냐고 딸이랑 한바탕 하기도 했다.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문득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머리가 더 굳기 전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글입력을 빨리 배울 수 있다가에 자격증 시험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

워드프로세서 시험을 준비할 때는 1분에 400타 이상을 쳐야 한다고 해서 매일 연습하다 보니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다. 시험장에서는 수험자가 아니라 손주를 따라 온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63세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선생님 권유에 컴퓨터활용능력2급도 취득 하게 되었고 어느새 10년이 흘러가고 있었다.

장애인 제자의 컴퓨터 선생님 겸 인생 멘토가 되다

컴퓨터자격증을 취득할 때마다 기뻐해주는 고양시장장애인협회 일산지사의 주선으로 1급 장애인을 교육하게 되었다.

가정방문으로 가보니 젊을 때 겪은 교통사고로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된 장애인이었다. 어떻게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큰 아들이 군에 갔는데 위문편지를 쓸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배우는데 입술이 터져가면서 마우스 잡는데만 두달이 걸렸다고 했다. 조용히 무엇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더니 '문서작성'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왜 문서작성을 하고 싶냐고 했더니 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글도 올리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런 용도라면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며 천천히 가르쳐 나갔다.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방법도 해 주었더니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보람이 있었다. 그 후 그 분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문학 공모에 응모해서 '대상'을 받았다. 축하한다! 나 자신도 그 분의 능력을 발굴해 준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하다. 그 뒤에도 그 분은 '최우수상'을 몇 번 수상했고 시도 써서 시낭송회에 나란히 참석하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 나는 어느새 그 분의 인생 멘토가 되어 지금도 변함없이 교류하고 있다. 어느 날 진심어린 말을 털어놓는데 교통사고 이후 계속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로 인해 다시 환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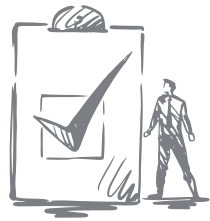
80세까지 컴퓨터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여성가족부의 희망날개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1급 장애인을 교육하고, 병원 정신과 낮 병동 환우 15명을 대상으로 병원 컴퓨터방에서 1년 동안 컴퓨터 강의를 하였다. 2020년 고령층 ICT 활동사업 "정보화교육 활동가"를 모집하는데도 응모하여 6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장애인 1급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친구들은 병원에서 강의료가 얼마 나오냐고 묻는데 솔직히 무보수로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그걸 왜하냐고 난리다. 컴퓨터는 계속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까맣게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가르치려면 내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 저절로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다.

컴맹이었던 내가 10여년 세월애 컴퓨터 교육자가 되어 있을 줄 꿈에라도 생각 못한 일이다. 지금도 친구들은 그렇게 컴퓨터 공부가 좋으냐고,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고 묻는다. 나는 치매 예방 차원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80세까지는 계속 할 계획이다. 코로나 시대에 바깥출입이 어렵다 보니 짬짬이 컴퓨터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나는 항상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상공회의소 한자시험 덕에 얻은 한의학 공부의 기회

손유래 / 상공회의소한자 2급



평범한 회사를 끝내고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도전하다

평범한 사원으로 작은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문득 앞으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 눈에 들어오는 다른 기회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직을 해야 할지,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던 중 주변 친구의 의대 편입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공부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기에 공부 방향을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던 당시 앞으로 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해야겠다는 것과 한없이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빨리 해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한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의대에 진학 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수능을 다시 보는 것, 학사편입에 도전하는 것,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도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을 끝내고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지만 실제 퇴사 절차를 밟기까지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족, 지인, 회사 동료들 모두 저의 도전에 회의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변인들의 반대를 무릅쓴 내적, 외적 갈등 상황에서 퇴사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니다.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을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

퇴사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생처럼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여러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 자격을 갖추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공인 '한자' 자격증 2급 이상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자 자격증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특성이 다르기에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 시험을 찾아서 시험을 봐야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공회의소의 한자 검정 시험 2급은 다른 시험의 1급 한자만큼 단어를 외워야 하는 더 도전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공회의소 한자는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중국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서 한자를 읽고 병음을 이용하여 타자로 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손으로 쓰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니다.

주관식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수기로 기입해야 하는 다른 시험보다 CBT로 보는 객관식 시험인 상공회의소 시험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내가 원하는 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자격증을 제출하는 분야에 도전하게 되는 경우 접수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퇴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한자 검정의 경우 다른 시험은 1년에 2~4회 정도 볼 수 있는데 시험 보고 자격증을 발급받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혹여 실수라도 해서 떨어지게 되면 일정상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다시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한자 검정의 경우 원하는 날짜에 접수해서 시험을 보면 이틀 안에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준비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한 번에 합격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도전으로 거의 한 달 만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고 한의학전문대학원 접수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자 자격증 때문에 원서접수 기한을 놓쳤더라면 다음 해의 입시까지 일 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희망하던 곳에 합격을 해서 지금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공회의소 한자시험을 준비하며 외웠던 곤충, 식물 등의 생소한 한자들이 약재에 종종 나와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한자 시험 자격증을 추천한다면 당연히 상공회의소 시험을 추천할 것입니다.

무역영어로 시작하여 무역전문가가 되다.

유호성 / 무역영어 1급, 2급, 3급



무역전문가 첫 걸음, 무역영어 자격증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26살 유호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 3학년으로 '36회 관세사 시험'에 최종합격 하였고,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관세청 국민정책참여단'으로 위촉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2020 무역협회 대학생 무역캠프 무역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무역실무 외부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방면에서 무역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성화고 고등학생 시절 무역에 빠지다

저는 남들보다 빨리 취업하고 싶었기에 특성화고인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테크노 경영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당시 학교는 '회계'와 '무역'을 주로 가르쳤으나 저는 무역에 특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글로벌 인재가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무역회사 및 무역관련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능력이 부족하여 낙방하였고 차선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취업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일찍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자격증, 무역영어 1·2·3급

군대에서 미래설계를 하던 도중 다시 무역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찾아보던 중 무역영어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국가공인이자 권위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시험이기 때문에 꼭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최전방에 근무하여 하루에 6시간도 잠을 못 잤지만 다시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하루에 독학으로 2시간씩 꾸준히 공부하였고, 휴가 나올 때마다 시험을 보아 2015년에 무역영어 1,2,3,급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무역영어는 제가 가졌던 인생 첫 자격증이자, 취업에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었던 저에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무역영어로 시작하여 관세사가 되기까지

무역영어를 취득한 자신감으로 국제무역사도 군대에서 단기간에 취득하였습니다. 군대 전역 후 저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학생수준에 충분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역 최고 전문가인 '관세사'의 꿈을 꾸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4년을 공부해도 100명중 8명밖에 볼지 못하는 시험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무역영어를 떠올리며 도전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군대에서 독학으로 무역영어를 공부하면서 따분함이나 어려움이 아닌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역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매일매일 설레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감정들을 기억하면서 관세사에 도전하기로 하였고 2년 만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무역영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다는 자신감과 무역영어에서 쌓았던 무역지식들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는 무역전문가를 꿈꾸다

관세사,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기에 서두에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인생 첫 자격증인 '무역영어' 합격을 확인했을 때의 기분이 잊히지 않습니다. 제 첫 원동력이 된 무역영어 자격증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하여 도전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자격증들을 발판삼아 무역전문가가 되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 자격증으로, 올림픽에서 취업까지

정석호 /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으로 비서 실기과목 면제를

대학교 졸업 후 시간제로 근무하던 어학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주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경영지원부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가끔씩 결원이 생겨 상담부에 지원을 가게 되면서 학원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을 응대하다보니 누군가를 모시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상담했던 고객님이 등원을 결정하거나, 불만을 표했던 고객님이 만족하며 갈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다. 이미 상공회의소에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이나 실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던 터에 자연스럽게 비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후 어떤 진로를 이어나갈지 모르던 상태지만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믿음과 추후 응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응시하기로 결정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다.

다행히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으로 비서실기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온전히 필기시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기에 한 번의 응시에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전공과 무관한 자격증이라 생소한 단어와 개념들이 많았지만 실제 고객을 응대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CS(customer satisfaction)관련 지식과 어학원의 근무경험, 비서영어를 다시 공부하면서 생긴 영어지식으로 인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비서자격 취득과 함께 한 평창올림픽이라는 특별한 경험

이 자격증 취득으로 더욱 기억에 남는 부분은 평창올림픽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이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진로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었다.

자격증을 12월에 취득하고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 의전/수송/수행 부문 단기계약직에 지원했고 면접 시 비서자격증 취득을 강조했으며, 이어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능력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도 공부했던 많은 부분들을 활용했다. 일례로 업무 특성상 상사와 함께 관내 출장을 갈 일이 많았는데 자격증을 준비할 때 배웠던 비서 실무에서의 출장관리와 상사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타 문화권에서 오신 상사 분들과도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식 비서 역할은 아니었으나 종일 일정을 같이 보내며 상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조하고 나는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큰 규모의 행사를 직접 발로 뛰며 경험해보니 더욱더 비서 직무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원하는 직종인 비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최종면접에서 2~3회 고배를 마시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풀려서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으로 나가게 되었다. 비록 내가 간절히 원하던 직종은 아니었으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요식프랜차이즈 해외법인이었기 때문이다. 유교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한국 요식업이란 상당 부분 달랐지만 상사의 일정 관리나 기초적인 의전준비에서 많은 부분을 자격증 준비하면서 배웠던 지식으로 준비를 할 때가 많았다. 문화권이 비록 다르더라도 자격증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이론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기에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선임들과 함께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면서 업무를 처리했던 기억이 많다.

비서자격과 CS분야 경험이 인정 받는 호텔리어 바탕이 되다

해외에서 약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잘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직접 고객을 모시는 '비서 같은 역할'의 일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재취업을 다시 한 번 준비하면서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고객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일념 하에 이번에는 조금 더 폭넓게 비서와 더불어 호텔리어까지 포함해서 직종 범위를 생각하고 준비했다.

면접 당시 호텔리어로서 경력 없이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서자격증을 취득한 이유와 그 뒤로 올림픽, 해외취업을 겪으면서 CS마인드를 잘 길렀음을 강조했다. 총괄지배인님께서 비서 자격증, 올림픽에서의 의전/수행 경험 등을 골고루 좋게 평가해주셨고, 그 결과 현 직장에서 잘 적응하게 되었다. 승진도 이른 시간 내에 달성하고 만족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비전공자인 내가 비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일종의 CS분야에서 '검증된 채용'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증 취득 후 현재까지 근 3년간 다양하고 값진 경험을 하게 해준 비서 자격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전국 상공회의소 현황 및 상시검정 안내

지역	상의명	전화번호	상시검정	지역	상의명	전화번호	상시검정
특별시 광역시	서울	02) 2102-3600	●	충북	청주	043) 229-2700	●
	부산	051) 990-7000	●		충주	043) 843-7004	●
	대구	053) 222-3000	●		음성	043) 873-9911	●
	인천	032) 501-6700	●		진천	043) 537-5900	
	광주	062) 350-5800	●		제천단양	043) 642-3114	
	대전	042) 480-3114	●	충남	충남북부	041) 559-5700	●
	울산	052) 228-3000	●		서산	041) 663-3063	●
	세종	044) 863-3080	●		당진	041) 357-2500	●
경기	수원	031) 244-3455	●	전북	전주	063) 280-1170	●
	안성	031) 676-4411			익산	063) 857-3535	●
	안양과천	031) 447-9171	●		군산	063) 453-8603	●
	부천	032) 663-6601	●		전북서남	063) 537-4511	●
	성남	031) 781-7901	●	전남	목포	061) 242-8581	●
	경기북부	031) 877-5811	●		순천	061) 741-5511	●
	평택	031) 655-5813	●		여수	061) 641-4001	●
	이천	031) 633-3961			광양	061) 793-0012	
	안산	031) 410-3030	●	경북	김천	054) 433-2680	
	화성	031) 350-7900	●		안동	054) 859-3090	●
	용인	031) 332-9812	●		포항	054) 274-2233	●
	김포	031) 983-6655			경주	054) 741-6601	●
	군포	031) 398-8451			영주	054) 632-8830	
	광주하남	031) 761-9090	●		구미	054) 454-6601	●
	시흥	031) 501-5700			경산	053) 811-3031	●
	광명	02) 2060-3047	●		영천	054) 335-6000	
	경기동부	031) 592-3039	●		칠곡	054) 974-0850	●
	고양	031) 969-5817	●		상주	054) 533-5841	
	포천	031) 535-0072	●	경남	창원	055) 210-3000	●
	오산	031) 373-7441			진주	055) 753-0411	●
	의왕	031) 451-5061			통영	055) 643-2330	●
	파주	031) 8071-4240	●		사천	055) 833-2204	●
강원	춘천	033) 251-2673	●		양산	055) 386-4001	●
	강릉	033) 643-4411	●		김해	055) 337-6001	●
	원주	033) 743-2991	●		밀양	055) 355-7111	
	삼척	033) 573-2401	●		함안	055) 584-2376	
	속초	033) 633-2564	●		거제	055) 637-3830	●
	동해	033) 533-3976	●	제주	제주	064) 757-2164	●
	태백	033) 552-5555					

상시검정
기준

대한상공회의소는 수험자의 편의제공과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54개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상시 검정을 시행합니다.

상공회의소 상시검정 특징

- 주중, 주말 상관없이 수험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전국 57개 시험장에서 최적의 수험 환경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채점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기간 내에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검정 시행 개요

- 시행자격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비서, 무역영어, 상공회의소 한자
- 시험장소 : 서울상공회의소 등 57개 지역상의(상단 표 참고)
- 접수방법 : 인터넷(<http://license.korcham.net>) 및 방문접수
- 합격발표 : (필기시험) 시험일 다음날 오전 10시, (실기시험) 시험일 포함 주 제외한 2주후 금요일

더 빠른 자격취득을 원한다면!

상공회의소 상시시험

취업에 성공하는 첫걸음, 대폭 확대된 응시 기회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30일이면 충분합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

학점 인정의
특전

상시시험 시행
전국
상공회의소

서울지역
서울상의회관(남대문)

경인지역
인천, 수원, 안양과천,
부천, 성남, 경기북부,
평택, 안산, 화성,
용인, 광명, 경기동부,
고양, 파주, 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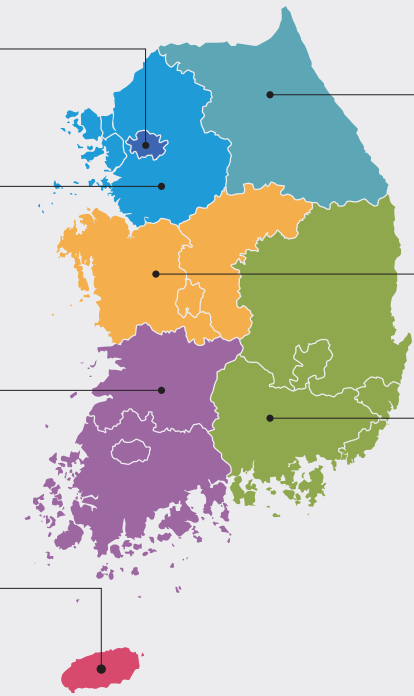
호남지역
광주,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목포, 순천, 여수

제주지역
제주

강원지역
춘천, 원주,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충청지역
대전, 청주, 충주,
충남북부, 서산, 당진,
음성, 세종

영남지역
부산, 대구, 울산, 안동,
경주, 구미, 경산, 칠곡,
진주, 사천,
창원(마산, 진해), 양산,
김해, 거제, 포항, 통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 4가 45)
Tel.02-2102-3600 Fax.02-6050-7158 <http://license.korcham.net>